

우리 문장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명환*

< 차례 >

- I. 여는말
- II. 우리 문장론의 진화
- III. 문장론의 원리와 체계
- IV. 문장론의 기술 실태
- V. 맺는말

I. 여는말

연구자는 1984년부터 지금까지 현장의 담문¹⁾ 실태를 연구해 왔다. 대상은 공주교육대학교 예비교사와 대전·충남 지역 초등교사가 쓴 ‘인생 설계’였다. 1989년에는 문교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의 예비교사와 초등교사의 ‘설계’도 수집하여 연구를 확장·심화시켰다. 이들의 작문 실태를 분석해서 문장 기술의 오용 사례를 유형화하는 데까지 나아갔고, 이를 바탕으로 초등 《읽기》 교과서 문장 기술의 오류도 검토하였다.

* 공주교육대학교 baldchoi@naver.com

1) 담문은 모든 갈래의 글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이른바 텍스트에 해당하는 용어로서의 담문은 discourse(담화)와 text(담문)를 구분하여 써야 할 필요에서 창안하였다. 그래서 ‘글 쓰기’, ‘문장론’, ‘기술론’의 영향 관계를 드러내기 위하여 필요한 때마다 이 용어를 골라 쓰고자 한다. 그리고 띄어쓰기는 ‘교육과정, 예비교사, 초등교사, 문장부호’와 같이 익은 말은 붙여 쓴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우리 글쓰기의 실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현장의 글쓰기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소재 선택의 범위가 좁고, 주제가 분명치 못하며, 어휘 구사가 단조롭고, 문장 구조는 단순하며, 문단 의식이 희미한데다 구성 개념은 미숙한 상태였다. 더욱이 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는 예비교사와 초등교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표기 규칙에서 벗어난 담문도 꽤 많았다. 그래서 글쓰기의 수준이 낮은 원인을 찾는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예비교사보다 초등교사의 글쓰기 기능 수준이 더욱 낮아 큰 문제였다. 예비교사의 글쓰기 기능 수준이 낮은 데는 원인이 있었다. 직전 교육이 부실해서였고, 직전 교육이 부실한 까닭은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서 글쓰기를 체계 있게 교육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른바 국민보통 교육과정에서도 글쓰기는 정상적으로 교학²⁾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현장의 글쓰기 교육은 진도 중심의 과정이 펼쳐질 뿐 기능 신장이나 전략 구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 원인이 국어 교과서의 문장 기술의 문제와 지도 전략 부재 그리고 학습자의 탐구 미숙임도 밝혔다.

그런데 국어 교과서는 거의가 현장교사와 국문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발한다. 다시 말해서 국어 교과서의 문장 기술에 문제가 있다면 참여한 현장교사와 국문교육 전공자의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국정 교과서 편찬은 기획, 집필, 연구, 심의를 분담하는 체제이다. 그럼에도 국어 교과서 문장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판하고 신중하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특히 국어 교과서 문장은 배우는 학생과 가르치는 교사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연구자가 5차부터 교육과정, 교과서 집필 및 심의에 참여해 보았지만, 이런 문장 기술 문제를 책임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지켜본 일이 없다. 교육과정 개정, 국어 교과서 집필, 심의 과정이 일정에 쫓겨 형식만을 갖출 뿐이다. 더욱이 연구 결과의 파장이 두려워 공론화를 꺼려 왔다.³⁾ 실제로 초등 국어 교과서로 사고를 조직하는 기능을 향상시

2) 이른바 ‘교수·학습’을 필요에 따라 ‘교학’으로 줄여 쓰고자 한다.

3) 심재기, 교과서 문장 실태 연구 1, 2(국립국어연구원, 1999). 이 연구 보고서는 비매품으

키는 교육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6차 초등 국어 3학년 《읽기》 교과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

우리나라 글쓰기 연구자들은 학습자가 왜 글을 쓰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밝히는 데 소홀하였다. 외국 이론을 수용하는 데 치우쳐 실태 파악에 눈을 돌리지 못해서였다. 수용한 이론으로 우리 담문(text)을 분석하여 혼란만 가중시켰다. 그러니 글을 잘 쓰지 못하는 이유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지도해야 글을 잘 쓸 수 있는지조차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거듭해 왔다. 수입학의 한계이고 탐구 부재의 결과이다.

이러한 글쓰기 문제의 원인이 원리 부재였음을 밝히고, 원리를 기초로 글쓰기의 체계를 확립하고, 문단 조직과 담문 구성을 올바르게 교육하면 사고력이 신장된다는 사례도 보고하였다(최명환, 2003). 이런 연구 과정에서 글쓰기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용어도 만들고⁵⁾ 이를 바탕으로 글쓰기와 지도의 체계도 세웠으며,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 담문의 진단 전략도 내놓았다(최명환, 2008). 그래서 글쓰기의 자주학과 창조학의 지평을 확장해 나아갔다.⁶⁾

그런데 우리 문장론⁷⁾에는 아직도 문제가 많다. 그 핵심을 원리, 체계, 기술, 교정의 문제로 가름해 볼 수 있다. 우리 글쓰기의 원리를 제안한 이

로 출판되었으나 보급되지 못하였다.

- 4) 5차는 《읽기》 교과서를 4·6판으로, 6차는 4·6배판으로 편찬하였다. 5차의 4·6배판에 실렸던 <사이좋게 지내자>를 6차 4·6배판에 실는 과정에서 원고 분량을 4·6배판에 맞추기 위하여 중심문장과 뒷받침문장을 줄 바꾸고, 한 문단이었던 내용을 세 대문으로 벌여 놓은 사례가 이를 말해 준다.
- 5) 최명환이 글쓰기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창안한 용어는 ‘아시쓰기, 여는말·피는말, 담문’이다. 이 가운데 ‘아시쓰기’는 호응을 얻었고, ‘들어가는말’의 불합리성에 공감하는 연구자들이 ‘여는말’로 바꿔 쓰기 시작하였으며, ‘담화’와 ‘텍스트’를 구분하기 위하여 만든 ‘담문’도 앞으로는 쓰이리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우리말에 없던 ‘담론’을 만들어 쓰는 우리가 ‘담문’이 없어 ‘텍스트’라고 썼지만, 그에 값할 ‘담문’이 제안되었으므로 국어문학계에서 두루 쓰이게 될 것을 기대한다.
- 6) 글쓰기의 자주학을 위하여 ‘아시쓰기 : 고쳐쓰기’, ‘여는말 : 피는말 : 맺는말’, ‘담화 : 담문 : 담론’ 체계를 확립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 7) 우리 글쓰기 이론서의 제목은 《문장강화》, 《문장기술론》, 《작문의 이론과 방법》 따위로 붙여졌는데, 이들을 ‘문장론’으로 통칭하고자 한다.

는 이지호이고(이지호, 2001), 이를 최명환이 확장하였다. 그럼에도 체계는 혼란스럽고, 전략은 수입 방법론이 고작일 뿐이다. 우리 문장론임에도 우리 문법에 맞지 않고, 구성 원리가 무엇인지조차 드러내지 못한 저술물이 수두룩하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문장론은 표현이 산만하고 표기마저 정확하지 못하여 글쓰기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해악을 끼칠 출판물도 없지 않다. 이름이 알려진 출판사의 저술물이라면 전문가의 교정 과정을 거쳤다고 보아야 하나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비판과 대안 탐색이 시급하다.

이제는 학문 공동체의 참여로 글쓰기의 체계와 체제를 확립할 때가 되었다. 연구자는 이런 발상을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에서 얻었다. 그는 《한국문학통사》 <제4권 머리말>에서 통사를 수정하고 보충할 지침을 마련해 준 39명의 이름을 적고, 직접 도와준 분들뿐만 아니라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한 수많은 동학의 공저라고 고마움을 나타내었다(조동일, 2005). 우리 문장론도 동학의 참여로 표준화를 지향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연구자는 《문장기술론》의 편집 및 교정 문제를 이미 지적하였는데(최명환, 2008), 이를 바탕으로 우리 문장론의 원리, 체계, 기술, 교정 관점에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II. 우리 문장론의 진화

우리 글쓰기의 새로운 전통은 광복 이후에서 비롯되었다. 조선시대까지 한문으로 글을 썼고, 일제 저항기 다수 지식인은 일본어로 의사소통하였다. 이 근대화 과정을 상징하는 낱말이 ‘광복’이다. 우리 문장론이 발전할 수 없었던 원인이 일제의 국권 침탈에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 광복을 맞고 나서야 글깨치기부터 시작하여 우리 글쓰기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런데 광복과 함께 들어온 미국 바람은 교육 사조와 방법에서도 크

게 영향을 미쳤다. 지속적인 교육과정이 없었던 우리는 미국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여야 했고, 그 영향은 반세기에 걸쳐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글쓰기의 이론과 방법이 이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우리 문장론이 잘 보여 준다. 이를 극복하고 우리 글쓰기의 전통을 확립하려면 먼저 문장론부터 비판하고 대안을 탐색해야 마땅하다.

이른바 한국의 현대 문장론은 1939년 이태준에서 출발하여 2008년 ‘연세대학교 출판부’에서 공동 저술한 《대학 글쓰기》가 나오기까지 70년이 넘는 동안 수십 종이 출판되었다. 그 가운데는 저자의 노력으로 출판된 문장론도 있지만, 표절에 해당되는 출판물도 없지 않다. 체계를 세우고, 예문을 가려 뽑아 분석하고, 자기 문체로 설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문장론과 남의 글을 통째로 옮기고, 그것도 쪽수를 채우기 위하여 문장 단위로 벌여 놓으며, 기본도 갖추지 못한 자기 글을 예문으로 든 《文章概說》도 있다. 그 가운데서 저자의 저작권을 인정받을 만한 문장론은 다음과 같다.

- [1-1] 이태준, 《문장강화》, 문장사(1940)
- [1-2] 이태준, 《증정 문장강화》, 박문출판사(1948)
- [2-1] 문덕수, 《신문장강화》, 성문각(1968)
- [2-2] 문덕수, 《개교 신문장강화》, 성문각(1976)
- [3-1] 김봉균, 《문장기술론》, 삼영사(1980)
- [3-2] 김봉균, 《제6판 문장기술론》, 삼영사(2005)
- [4-1] 서정수, 《작문의 이론과 방법》, 새문사(1985)
- [4-2] 서정수,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한강문화사(1991)
- [5] 이오덕, 《우리문장쓰기》, 한길사(1992)
- [6] 이대규, 《수사학》, 신구문화사(1995)
- [7-1] 신형기 외, 《글쓰기》, 연세대학교 출판부(2003)
- [7-2] 정희모 외, 《대학 글쓰기》, 삼인(2008)

이들 문장론⁸⁾은 우리 글쓰기 교육과 교양 작문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8) 이들 일곱 분의 문장론에서 [1]은 증정판, [2]는 개교판, [3]은 제6판, [4]는 한강문화사본을 선택하였다. [1]과 [2-1]은 세로쓰기이고, [2-2] 이후는 가로쓰기이다.

[2], [3], [4], [6]은 외국 작문론의 영향을 받았지만, 광복 이후 이태준의 문장론을 기술적으로 뛰어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4]는 문단 조직 원리를 도입하여 사고 조직과 담문 구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문장론 갈래 특성에 충실한 저술이다. 그리고 [5]는 언어의 식민 잔재 청산에 앞장선 문장론으로 평가받을 만하고, [6]은 작품 분석에서 모범을 보여 주었다. [7]은 공동 저술로서 기존의 문장론 지평을 확실하게 바꿔 놓아 문장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특히 이오덕의 우리글 바로쓰기를 위한 삶과 이대규의 뛰어난 작품 분석을 위한 탐구의 도정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 준 업적이다. 그래서 이오덕의 글살이와 이대규의 탐구 태도는 한국 문장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러면 위에 든 문장론은 표준화를 지향하였는가? 그렇지 않다. 원리, 체계, 기술, 수사, 표기 따위에서 표준에 가까운 문장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 까닭은, 역사의 곡절로 우리 문장론이 진화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자에서 한글로 전환하는 시련, 일제의 잔학한 탄압, 광복 이후 수입학의 혼란이 표준화를 방해하였다.⁹⁾ 우리 문장론이 거듭나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글쓰기 연구의 비평 부재를 들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글쓰기 학위 논문이나 참고문헌에서 우리 문장론을 찾아볼 수 있는 연구 풍토도 비관받아 마땅하다.

한편, 어떤이는 문장론 표준화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통시적 관점에서 당대 최고의 문장론은 그 시대의 표준화를 지향한 담문론으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유희의 《文心雕龍》은 6세기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지금도 읽히며, 브룩스와 워렌의 《현대 수사학》은 현대 한국 문장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비평을 받아온 이태준의 《문장강화》를 1988년 창작과비평사에서 ‘창비 교양문고’로 출간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¹⁰⁾ 이와는 달리 이오덕과 이

9) 조동일은 최재학의 《실지용용작문법》(1909)이 작문의 원리와 지침을 한문을 모형으로 삼아 국한문에 적용할 수 있게 했으며, 효과적인 표현을 설명한 대목에서는 서양 수사법을 받아들여 국한문 작문의 논리와 방법까지 갖추고자 애쓴 문장론이라고 평가하였다.

대구의 문장론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대중과 학자 사이에 널리 읽힐 것이다. 비록 이들 저술이 당대 문장론의 표준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대의 반응이나 후대의 영향으로 미루어 보아 표준을 지향한 문장론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의 현대 문장론을 비판하고자 하는 까닭은 좀더 분명해졌다. 첫째, 글쓰기 원리에 맞도록 교육하려면 먼저 문장론에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둘째, 우리말본에 맞는 글쓰기의 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을 탐색해야 한다. 셋째, 정련의 문장론을 출판하려면 기존의 문장론을 검토해야 마땅하다. 넷째, 학문 공동체의 참여를 기대하려면 먼저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섯째, 출판사의 편집 기술 수준을 높이려면 전문가의 비판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런 비판은 학문 공동체의 준엄한 책임 의식, 냉철한 집필 태도, 치열한 경쟁 체제를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그래야 품격과 정련으로 표준화를 지향한 21세기의 문장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문장론의 원리와 체계

1. 글쓰기 원리

신은 자연을 창조했고, 인간은 물상을 보고 상형문자를 고안하였다.

-
- 10) 조동일, 우리 학문의 길(지식산업사, 1993), p.58. 《文章講話》는 작문법을 망친 악서 입을 분명하게 하고, 그 여독을 치료해야, 작문법의 바른 길이 되살아날 수 있다. 서두에서 과거의 한문 글쓰기가 상투적인 표현 때문에 망쳐졌다고 하면서 편지투를 하나 들어 보인 것이 무식의 소치이겠는데, 그런 책 저자의 무식은 범법행위이다. 한문으로 글을 쓰면서 창의력을 살려 이치를 새롭게 밝힌 그 찬란한 역사와 놀라운 업적을 한말로 무시하고, 논리는 돌보지 않으면서 감각에 탐닉하는 일본 특유의 미문을 본뜨려 한 것은 식민지 시대에 받은 심각한 상처의 하나이며, 신파조의 이식만 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

중국인은 중국 물상의 모양을 본떠 한자를 만들었고, 일본인은 한자를 보고 가나 문자를 차용해 내었다. 세종대왕은 우주의 모양과 발음기관을 본떠 훈민정음의 자모 기본자를 창안하였다. 이를 한자의 상형 원리, 가나의 차용 원리, 정음의 창제 원리라 부를 만하다.

그런데 연구자는 문자 창제의 원리에서 글쓰기의 원리를 도출해 내었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는 삼재, 가획, 결합, 수용, 변이 원리이다. 연구자는 삼재에서 선택, 가획에서 확장, 결합에서 배열, 수용에서 통합, 변이에서 전이 원리를 도출하였다. 세종대왕은 우주 만물 가운데서 천지인 삼재를 선택하여 자모의 기본 모형을 고안하였다. 또한 이를 확장하여 자모 28자를 만든 다음 배열하여 체계를 세우고,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어 씀으로써 세상의 모든 소리로 새로운 세계에 도전할 수 있는 문자를 창제하였다. 그러므로 훈민정음해례는 글쓰기의 원리로 서술하였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전통과 맥락이 창조적 발상이고 창조학의 바탕이다(최명환, 2006 : 31).

훈민정음에는 글쓰기의 원리가 고스란히 스며 있다. 우주의 핵심인 삼재를 글감으로 선택하고, 거기서 비롯된 생각을 확장하여 문장으로 진술하였으며, 해설해 나감으로써 해례를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의 생각과 내 생각을 통합하고, 보통 생각과 창의적인 발상으로 탄력을 얻었다. 이런 창제의 원리가 바로 선택, 확장, 배열, 통합, 전이 원리이다.

이러한 훈민정음의 창제에 깃든 원리에서 도출한 글쓰기의 원리를 오늘날의 글쓰기에 활용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런 원리를 바탕으로 글쓰기가 이루어져야 세계 문화를 이끌 수 있는 생극의 담문을 창작할 수 있다(조동일, 1996). 이런 글쓰기 원리가 우리 문장론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져 있는지 검토해 보면 문장론에서 원리를 강조해야 하는 까닭이 좀 더 분명해진다.

우리 문장론에서 글쓰기의 원리를 다루는 데까지는 거의 반세기가 걸렸다. 이태준의 《문장강화》에서 김봉군의 《문장기술론》까지가 이를 말해 준다. 이태준은 원리를 깨닫지 못하였고, 김봉군은 원리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글쓰기의 일반 원리와 기술의 세부 원리를 구분하지 않아 혼

란스럽다. 김봉균의 원리 체계는 다음과 같다.

- ① 충실성, ② 방법과 기교, ③ 정확성, ④ 경제성, ⑤ 정직성, ⑥ 성실성,
⑦ 명료성, ⑧ 일관성, ⑨ 완결성, ⑩ 독창성, ⑪ 타당성, ⑫ 자연스러움, ⑬
윤리성(김봉균, 2005)

그런데 이들 원리는 좀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일관된 이름이 붙여지지 않아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다. 둘째 너무 세분되어 원리의 구실을 다하지 못한다. 셋째 배열의 논리성도 존중되어야 한다. ②의 ‘방법과 기교’는 ‘기교성’으로, ⑫의 ‘자연스러움’은 ‘자연성’으로 고치면 명명 방식은 통일된다.

그런데 13가지 원리의 개념을 분명하게 진술하려면 변별 요소를 명쾌하게 분석해야 하나 실제의 정의를 살펴보면 그렇지 못하다. 예컨대 ‘충실성’과 ‘윤리성’의 정의가 양식에 맞지 않고, 설명도 부실하다는 사실이 중심문장의 구조에서 드러난다.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같은 층위에서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⑥의 ‘성실성’과 ①의 ‘충실성’, ⑬의 ‘윤리성’과 ⑤의 ‘정직성’, ⑦의 ‘명료성’과 ③의 ‘정확성’ 따위를 정의하려면 이들의 변별 요소부터 분석하여 설득력을 띠어야 할 것이다(김봉균, 2005 : 31).

김봉균이 글의 일반 원리를 좋은 글의 요건으로 든 것처럼 이대규도 좋은 작품이 되는 기준을 다섯 가지 설정하였다.

필자의 의도가 분명하고, 필자의 의도에 맞게 작품을 구성하고, 단위 구분이 잘 되어야 하는 것도 작품의 조건에 속한다. 이외에도 작품의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이 중에서 통일성, 일관성, 경제성, 명료성, 균형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이대규, 1995).

이대규는 김봉균의 13가지 조건에서 꼭 필요한 다섯 가지를 가려 뽑아 좋은 담문의 필요 조건을 말하였다. 그런데 이대규도 명칭에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개념을 명료화하지 못하였다. 곧 ‘통일성, 일관성, 명료성’으로 담문의 ‘균형’을 잡으면 그 자체가 완벽한 구조이므로 굳이 ‘경

제성'을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봉균의 좋은 글의 요건과 이대규의 좋은 작품의 조건을 바탕으로 글쓰기 원리의 체계를 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은 원리가 제안되었다. 김봉균의 '충실성·정직성·성실성·윤리성'을 주제와 관련시켜 묶고, '정확성·명료성·타당성·경제성·자연스러움'은 문장 진술과 사고 조직과 관련시켜 가르고, '일관성'과 '완결성'은 담문 구성 관점에서 다루고, '독창성'과 '방법과 기교'을 표현과 관련시켜 체계를 세우면 글쓰기의 5대 원리로 가름할 수 있다. 김봉균과 이대규의 주장을 수용하여 연구자의 글쓰기 원리에 따라 체계를 잡으면 다음과 같다.

- 진실성 : 소재, 주제(⑤ 정직성, ⑥ 성실성, ⑫ 자연성, ⑬ 윤리성)
 충실성 : 내용, 원고 분량(① 충실성, 균형)
 정확성 : 표기, 문장, 문단(③ 정확성, ④ 경제성, ⑦ 명료성, ⑪ 타당성)
 일관성 : 구성, 담문[글](⑧ 일관성, ⑨ 완결성)
 참신성 : 비유, 강조, 변화(② 기교성, ⑩ 독창성)

이대규의 좋은 작품 조건 5가지 가운데 4가지는 김봉균의 13가지 요소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대규의 용어 '균형'이 외딴어져 있으나 이도 '충실성'에 포함된다. 그러면 위와 같은 글쓰기 원리의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런 연구자의 제안에 대해서는 작문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 글쓰기 원리가 정립되기를 바란다.

2. 글쓰기 체계

체계란 일정한 원리에 따라 낱말의 부분이 짜임새 있게 조직되어 통일된 전체를 말한다. 이런 체계는 사고의 뼈대로서 학문의 기초를 이룬다. 그런데 우리글을 이끌어야 할 문장론의 체계가 어지럽다. 글쓰기의 원리에 따라 요소가 짜임새 있게 조직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글쓰기 교육의 방향은 이런 체계를 올바르게 잡아 주는 데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러면 문장론의 체계는 어떠한지 이태준의 《문장강화》 차례¹¹⁾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 제1강 문장 작법의 새 의의
- 제2강 문장과 언어의 제문제
- 제3강 운문과 산문
- 제4강 작문 문장의 요령
- 제5강 퇴고의 이론과 실제
- 제6강 제재, 서두, 결사 기타
- 제7강 대상과 표현
- 제8강 문체에 대하여
- 제9강 문자의 고전과 현대

이태준은 책 제목을 ‘문장강화’로 붙였으므로 ‘장’ 표시는 ‘강’으로 잡았다. 이 논문에서는 ‘강’을 ‘장’으로 바꿔 부르기로 한다. 이태준의 차례 9개 장은 우리 문장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의 차례 1~2, 9장은 ‘문장론과 언어’, 3~4장은 ‘여러 갈래의 글쓰기’, 5~6장은 ‘작문 과정’, 7~8장은 ‘표현과 문체’로 가름할 수 있다. 이 구성 체계는 제3~4장과 제7~8장의 순서가 바뀌어 후대의 문장론에 수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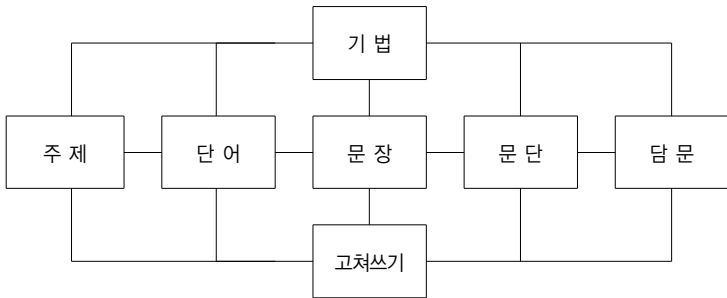
문덕수는 ‘머리말’에서 《현대 수사학》의 영향을 언급하였으나 《신문장강화》답게 이태준의 체계를 존중하였다. 이런 체계는 김봉균에 와서 크게 바뀌었다. 김봉균은 문장론의 차례를 1~4부로 나누고, 원리와 기술 양식, 과정과 실제로 체계를 세웠다. 서정수는 제1, 2권으로 나누고, 앞에서 글쓰기 과정, 뒤에서 실체를 들었다. 이오덕은 4부로 나누어 1부에서 ‘글의 정의’, 2부에서 ‘문체’, 3부에서 ‘단계’, 4부에서 ‘여러 가지 글쓰기’로 썼다. 이대규는 6개 장으로 나누었는데, ‘서론, 문체, 묘사’와 ‘서사, 설명, 논증과 설득, 작품의 분석과 재구성’ 따위이다. 그리고 정희모 외는 3부를 1부에서 ‘좋은 글의 요건’, 2부에서 ‘글쓰기 과정’, 3부에서 ‘학술적

11) 이태준은 일제 강점기에 《문장강화》를 내면서 일찍이 순화될 용어 ‘차례’를 썼으나 문덕수는 일본 용어 ‘목차’를 썼다.

글쓰기'로 구성하였다. 저자에 따라 용어를 달리하였지만, 우리 문장론의 구성은 4분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문장론의 4분법 체계는 보편성을 띤다. 이태준에서 출발하여 문덕수가 다듬고, 김봉균이 기웠다. 서정수는 김봉균의 글쓰기 과정을 심화시켜 문단 조직을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이오덕은 자주적인 글쓰기를 모색하였으며, 이대규는 작품 분석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리고 정희모 외는 수요자 중심의 문장론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런 진화 과정에서 문체에 대한 관심이 약화되었고, 과정 탐구가 강화되었다.¹²⁾ 이것이 구성주의 작문론의 영향이라고 해석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문장론의 구성 요소는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확장하면서 정교화 단계를 거친다. 이런 글쓰기 과정에 작용하는 요소를 체계 관점에서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최명환, 2008).



<그림> 글쓰기의 체계

위 <그림>에는 글쓰기의 일곱 가지 요소가 그려져 있다. ‘주제’는 소재, 제목, 갈래를 함축하므로 그 밖의 요소와 두루 관련을 맺는다. 그리고 나머지는 글쓰기의 단계에 따른 네 가지 확장 단위를 가리킨다. ‘단어’에

12) 문체를 비중 있게 다룬 저술가는 이태준, 문덕수, 이오덕, 이대규이고, 김봉균은 5판까지 ‘문체’와 ‘수사’를 다루었으나 6판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서정수와 정희모는 처음부터 문체와 수사를 거론하지 않았다. 위렌과 브록스의 《현대 수사학》은 이들을 각각 한 장씩 다루었다.

서 ‘답문’까지의 횡축은 확장 의미를 띠고, ‘기법’과 ‘고쳐쓰기’는 종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수사 기법은 글쓰기 과정에서 모든 요소에 작용하고, 고쳐쓰기는 아시 쓴 원고를 수정 보완하는 과정에 작용하는 요소이다. 그러면 문장론의 차례와 글쓰기 과정도 이 그림으로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 체계는 글쓰기 과정, 사고 확장의 원리, 전략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글쓰기의 요소 체계를 문장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할 수만은 없다. 이런 요소는 너무도 간략하고 문법적인 충위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문장론이든 이런 요소를 빠뜨리지 않는다는 역설에 주목하면 기초 교육을 전제한 문장론의 체계는 좀 더 명쾌하게 틀을 갖추어 필요가 절실하다.

IV. 문장론의 기술 실태

1. 문장 기술

문장 기술은 대상이나 과정의 내용과 특징을 있는 그대로 열거하거나 기록하여 서술하는 방식이다. 이런 문장 기술은 문장을 연결하여 문단을 조직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배열하여 답문을 구성한다. 따라서 문장 기술은 문단 조직과 그 배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이태준의 문장론에는 ‘문단’ 또는 ‘단락’이라는 용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문덕수와 김봉균이 문단을 도입하고, 서정수가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¹³⁾

그런데 우리의 문단 구조는 아직도 느슨하기 이를 데 없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태준은 문단 용어를 쓰지 않았고, 이오덕, 이대규, 정희모

13) 문덕수, 이오덕, 서정수는 사고 조직의 단위를 일컫는 용어로 문단, 단락, 대문 따위를 혼용해 썼으나 이대규는 ‘문단’으로 통일해 썼다.

도 문단을 특별하게 다루지 않았다. 문단은 문덕수와 김봉균이 도입하여 서정수가 정착시켰다. 그래서 우리 문장론은 아직도 문단 조직에서 허술함을 보여 준다.

우리 문장론 저술가들은 문단을 강조하였지만 조직하는 데는 치밀하지 못하였다. 이런 문단에 긴장을 불어넣으려면 문단 조직의 원리에 따라야 한다. 문단의 크기와 문장의 길이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시간, 공간, 관계, 심리 작용에 따라 조직해야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다음 <보기 1, 2> 문단을 이런 원리에 따라 분석해 보자. <보기 1>은 한 문단이 13문장이고, <보기 2>는 3문장을 두 대문으로 조직한 경우이다.

<보기 1-1>

① 문예문과 직접 체험이 꼭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해도, 작가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많은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② 1954년 대중소설 ‘자유 부인’은, 작가 정미석이 신문 기사의 통계를 근거로 하여 쓴 작품이라 한다. ③ 을유년 광복 후 약 10년간 신문 사회면에서 으뜸을 차지한 것은 유부녀들이 춤바람으로 폐가망신한 기사였다는 것이다. ④ 또 장덕조는 역사 소설 ‘낙화암’을 집필하기 위해 부여로 가서 2주일 동안이나 현지 답사를 했다. ⑤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 레터’와 정신 여학교 기숙사의 실화, 김동인의 ‘붉은 산’과 만주 만보산 사건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M. 미첼(1900~1949)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조지아주 애틀랜타 근교를 3년간이나 살피고, 10년이나 걸려서 써내었다. ⑦ 심리주의 소설가 E. A. 포(1809~1849)는 극단 배우인 부모를 따라다니며 배우들의 어둡고 타락한 생활상에 접하였던 체험을 작품 속에 용해시켰다. ⑧ 6·25 전쟁에서 취재한 ‘바람과 파도’의 작가 이노우에(井上靖)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판문점과 강화도를 직접 답사한 일이 있다. ⑨ 최근 우리 나라의 유명 작가 이병주, 박경리, 천승세, 이청준, 한수산, 황석영, 이문열, 이외수, 김원일, 조정래, 조성기 등의 작품은 그들의 직접 체험과 현장 답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⑩ 이병주의 ‘지리산’,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빨치산의 활동상에 대한 자료 조사와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했고, 천승세의 거저 체험, 한수산의 서커스 단원 체험이 그들 작품의 농도를 짚게

했다. ⑪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 ‘금시조’는 10대, 20대 시절의 아픈 방향의 산물이며, 김원일의 ‘노을’은 6·25때 고향 진영에서 겪은 소년 시절의 체험을 소재로 한 것이다. ⑫ 이청준의 ‘매잡이’, ‘잔인한 도시’,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낮은 데로 임하소서’, ‘서편제’ 등에서 현장 체험이 치열하게 감지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⑬ 법학을 버리고 종교의 경지를 추구한 조성기의 ‘야훼의 밤’, ‘우리 시대의 소설가’ 들은 독특한 체험의 세계를 보여 준다(김봉군, 2005 : 34, 문장의 일련번호는 연구자가 붙였음. 이하 같음).

<보기 1-1>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고쳐 써 볼 만하다. 첫째, <보기 1-1>의 첫 문장을 간명한 중심문장으로 고쳐 쓴다. ①번 문장의 종속절을 삭제하고 주절만 살리면 문단 주제가 선명해진다. 둘째, 직접 체험 문장을 앞에, 간접 체험 문장을 뒤에 놓는다. 셋째, 일상 체험에서 특수 체험으로 넘어간다. 넷째,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움직인다. 다섯째, 국내 작가에서 외국 작가로 배열한다. 그리고 종결 구조를 다양하게 바꾼다. 13개 문장 가운데 거듭 쓰인 종결어가 ‘있다(4), 하대[이형태](3), 것이다(2)’인데, 이를 교체하여 다양하게 바꾸어 문체의 묘미를 살리면 다음의 <보기 1-2>와 같은 문단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보기 1-2>

① 작가는 좋은 글을 쓰기 위하여 많은 체험을 할 필요가 있다. ⑪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 이문열의 <젊은날의 초상>, 《금시조》는 10대, 20대 시절의 아픈 방향의 산물이며, 김원일의 <노을>은 6·25때 고향 진영에서 겪은 소년 시절의 체험을 소재로 골랐다. ⑤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 레터>와 정신 여학교 기숙사의 실화, 김동인의 <붉은 산>과 만주 만보산 사건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② 1954년 대중 소설 《자유 부인》은, 작가 정미석이 신문 기사의 통계를 근거로 하여 쓴 작품이다. ③ 을유년 광복 후 약 10년간 신문 사회면은 춤바람으로 폐가망신한 유부년들의 기사로 채워졌다고 한다. ⑨ 최근 우리 나라의 유명 작가 이병주, 박경리, 천승세, 이청준, 한수산, 황석영, 이문열, 이희수, 김원일, 조정래, 조성기 등의 작품은 그들의 직접 체험과 현장 답사가 바탕이 되었다. ⑫ 이청준의 <매잡이>, <잔인한 도시>, <이어도>, 《당신들의 천국》, 《낮은 데로 임하소서》, 《서편제》

등에서 현장 체험이 치열하게 감지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⑬ 법학을 버리고 종교의 경지를 추구한 조성기의 <야훼의 밤>, <우리 시대의 소설가> 들은 독특한 체험의 세계를 보여 준다. ⑭ 또 장덕조는 역사 소설 《낙화암》을 집필하기 위해 부여로 가서 2주일 동안이나 현지 답사를 위해서 머물렀다. ⑮ 이병주의 《지리산》,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빨치산의 활동상에 대한 자료 조사와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했고, 천승세의 거지 체험, 한수산의 서커스 단원 체험이 그들 작품의 농도를 높였다. ⑯ 6·25전쟁에서 취재한 《바람과 파도》의 작가 이노우에(井上靖)가 작품의 배경이 되는 판문점과 강화도를 직접 답사하고 나서 쓴 작품이다. ⑰ 심리주의 소설가 E. A. 포(1809~1849)는 극단 배우인 부모를 따라다니며 배우들의 어둡고 타락한 생활상에 접하였던 체험을 작품 속에 용해시켰다. ⑱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작가 M. 미첼(1900~1949)은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조지아주 애틀랜터 근교를 3년간이나 살펴보고, 10년이나 걸려서 써내었다.

<보기 1-1>은 《문장기술론》에서 가장 긴 문단이다. 이 문단의 긴밀성이 떨어지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래서 문단 조직의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간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걸린다. ‘이병주, 천승세, 이청준, 한수산, 황석영, 김원일, 조정래, 조성기’의 이름이 거듭 나오고, 이들의 이름을 열거한 순서가 논리에 맞는지 의심스럽다. 문학사의 평가, 등단 시기, 작품 발표 연도를 고려한 배열이었던지도 검토 대상이다.

결국 위 문단은 김봉군이 수집한 체험 관련 자료를 늘어놓았을 뿐이다. 게다가 중심문장이 간명하지 않아서 주제가 흐리고, 열거의 원리에 따르지 않아 산만하며, 종결 구조가 반복되어 문체의 단순성을 드러낸데다 문장부호로 단편과 장편을 구분하지 않아 독자를 혼란시킨다. 이와 같이 문단은 논리적 사고의 기초로서 원리에 따라 조직해야 담문의 핵심적인 구성에 이른다. 그래서 문장론의 핵심 개념이 문단 조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다음 <보기 2>는 4문장밖에 안 되면서 두 대문으로 조직되었다. <보기 2> 역시 중심문장이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a) 단락과 그 길이 : ① 완결성을 충족시킬 정도라면, 단락의 길이는 불필요하게 길 까닭이 없다.

② 가장 짧은 단락의 길이(the minimum limit)는 한 단어일 수 있고, 긴 단락은 한정이 없다(no maximum)고 볼 수 있다. ③ A. 헉슬리(Huxley, Aldous)의 에세이 ‘전환점에 선 위즈워드’에는 1,272단어나 되는 단락이 있고, 김진섭(金晉燮)의 수필 ‘교양(敎養)에 대하여’에는 532단어가 넘는 것이 있다(김봉균, 2005 : 430).

위 두 대문의 주제어는 ‘문단의 길이’이다. 이를 중심문장으로 진술해야 구실을 다하여 문단으로 조직된다. <보기 2> 의 중심문장은 이른바 단락 길이의 적절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문장을 중심문장과 연결시켜야 ‘단락의 길이’ 문단 구실을 떠맡을 수 있다.

위에서 <보기 1, 2> 두 문단을 살펴 김봉균의 문단 조직 실태를 엿보았다. 이렇게 덜 여문 문단이 김봉균의 《문장기술론》을 좀먹는다.¹⁵⁾ 좀 더 날렵한 도우미가 되면 구체적인 문제로 문장론의 지평을 튼튼히 닦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심문장 구조부터 분석해야 한다.

문단 조직의 핵심 요소인 중심문장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구조의 단순성, 의미의 명료성, 기능의 적절성이다. 이런 중심문장의 요건을 익히려면 정의의 진술 방식에 따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진술 방식이다. 낱말을 정의하려면 기본적으로 뜻매김할 요소를 앞에 내세우고, 그 뒤에 그것을 뜻매김하는 내용을 보여야 한다. 이를테면 ‘사람’이라는 낱말을 정의하려면 <보기 3>과 같은 방식을 갖춘다.

<보기 3>

사람은 합리적인 동물이다.

위 <보기 3>에서 ‘사람’은 정의받는 요소이고, 그 뒤의 서술은 정의하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정의는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이 두 부

15) ‘문단 조직’에 관한 더 많은 교정 자료는 김봉균 교수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준비하였다.

분은 다음에서 보듯이 일종의 등식 관계로 맺어진다.

[정의되는 부분] = [정의하는 부분]
 사람 = 합리적인 + 동물
 [변별 요소][범주]

이러한 정의의 진술 방식은 설명문과 논술문 쓰기의 기초이다. 초등학교에서 사전찾기, 낱말 공부라 바로 이 정의의 진술 방식을 터득하기 위한 초보적인 연습이다. 그러므로 글쓰기의 기초 교육은 낱말찾기, 정의의 진술 방식에서 출발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정의에 어둡다. 예비교사는 말할 것 없고, 현장 교사도 정의에 서툴다. ‘기술론’의 정의는 어떠한지 살필 차례가 되었다. 김봉균은 좋은 글의 요건 13가지를 들고, 이들을 정의하였는데, ‘충실성’과 ‘윤리성’의 정의 <보기 4, 5>를 살펴보자.

<보기 4>

글은 우선 내용이 충실해야 한다. 부질없이 길기만 하고 담긴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공허하거나 무의미한 것은 좋은 글이 아니다. 글의 내용이 알차서 밀도 있는 것을 ‘충실성’이라 한다.

<보기 4>는 충실성의 정의가 아니다. 충실성이 지향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고, 충실하지 못한 사례를 들었을 뿐이다. 충실성은 내용이 알차고 단단한 성질이다. 따라서 사전적 정의에서 글쓰기의 원리로 새롭게 정의해야 충실성이 글쓰기의 원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기 5> 윤리성의 정의도 구조에서 벗어났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가 윤리이고, 그런 정신적 지향이 윤리성이다. 그런데 다음 <보기 5-1> 첫 문장은 정의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

<보기 5-1>

인간은 육체적 존재일 뿐 아니라 심미적, 윤리적, 종교적 실존이다. 유신

론적(有神論的) 실존주의(實存主義) 철학의 아버지 K. 키에르케고르의 말이다.

정의의 문장은 <보기 5-1, 2>처럼 ‘~르 뿐만 아니라’를 써서는 안 된다. ‘~르 뿐만 아니라’는 중심문장에도, 담문의 첫 문단에도 쓰이지 않는다. 그것이 ‘~르 뿐만 아니라’의 사용 규칙이다. 강조하려면 명분을 내세우고, 그를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고, 더 나아가야 할 때 ‘~르 뿐만 아니라’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기 5-1, 2> 는 구조에서 벗어난 정의 양식이다.

<보기 5-2>

정의는 그것을 읽는 사람뿐 아니라 정의내리는 이에게도 쓰임새가 있다. 정의는 사고(思考)의 한 방식이며, 자기의 견해를 명료히 하는 한 수단이 된다. 조그마한 지식, 정보 자료로써는 소박한 정의를 내리고, 좀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간단히 정의되지 않으므로 확장적 정의가 요청된다(182쪽).

이러한 정의 진술 방식이 서툴면 반드시 문단의 중심문장에도 빈틈이 나타난다. 다음 <보기 6~9>가 이를 말해 준다. 이른바 동어반복은 정의 양식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용 사례이다. <보기 9> 에 가까울수록 진화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 6>

- ① 이 글은 단지 사실을 ‘확인’하는 글이다(54쪽).
- ② 다음 글은 서사적 설명에 해당하는 글이다(167쪽).
- ③ 이 글은 신라 향가 ‘처용가’(處容歌)와 초현실주의 소설 ‘날개’ 구성상의 유사성 내지 동일성을 비교, 설명한 글이다(172쪽).
- ④ 이 글은 넙치·가자미·도다리 등의 차이점을 대조, 설명한 글이다(173쪽).
- ⑤ 이 글은 시를 인용하여 역사의 이론을 정립하려는 약간은 기상천외의 효과를 노린 글이다(317쪽).
- ⑥ 이 글은 ‘문학과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쓴 영문학자 최재서(崔載瑞)의 글이다(318쪽).

⑦ 위의 밑줄 친 부분이 ‘뒷받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87쪽).

이상 일곱 사례는 동어반복 구조의 문장이다. 동어반복은 주술 관계가 불명료하므로 빚어진 결과이다. 정의 진술 방식에 익숙해진 독자라면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문장들이다.

다음 <보기 7>도 주술 관계에서 파생된 문제이다.

<보기 7>

- ① 문제작을 내어 놓기로 유명한 하근찬의 단편에서 뽑은 것이다(37쪽).
- ② 위의 두 글 중 첫째 글은 속담을 뜻풀이한 것이고, 아랫것은 제라늄을 설명한 것이다(43쪽).
- ③ 이 글은 스미스(Smith, J. R.)와 필립(Philips, M. O.)이 쓴 ‘북아메리카의 지리’에서 뽑은 것이다(156쪽).
- ④ 위의 글은 악을 물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178쪽).

위와 같이 ‘것이다’를 서술어로 쓰면 주어와 동격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온전한 문장 구조를 이룰 수 없다. ‘~것이다’를 정의의 양식에 맞춰 범주의 개념어로 써야 올바른 문장 구조를 갖춘다. 문장의 유창성은 이런 격식에서 우러난다.

다음 <보기 8>의 진술은 구조에 문제가 있다. ①~③은 주어가 모호하고, 별별 요소에 해당하는 부분이 길어져 의미를 흐렸다. ④~⑥은 주술 관계가 호응을 이루지 못하여 뜻이 분명하지 못하다. 이른바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어가 포괄적이어서 호응을 이루지 못한 ‘보기’이다.

<보기 8>

- ① 헤겔의 법철학의 내용을 적은 설명의 글이다(151쪽).
- ② 국립 공원 한려 수도의 그림 같은 경관과 충무공 유적지를 소개, 설명한 글이다(169쪽).
- ③ 예시(例示)가 없이 추상적 진술로만 이루어진 글이다(178쪽).

- ④ 다음은 신화를 분류한 글이다(178쪽).
- ⑤ 이 인용문은 기상 변화와 함께 심경의 변화를 소박하게 진술한 글이다(313쪽).
- ⑥ 위의 글에서 첫머리 따옴표 있는 둘째 단락은 주제를 압축한 글이다(90쪽).

정의의 양식을 익히고 나야 <보기 8>처럼 문장 구조에 눈을 뜬다. 그러나 ①~③은 정의되는 부분 곧 주어가 모호하여 뜻이 분명치 못하고, ④~⑥은 변별 요소인 범주가 막연하여 뜻이 흐려졌다.

다음의 <보기 9>는 정의되는 부분의 개념어는 포괄적인데, 범주를 협소한 개념어로 받아 주술 호응을 이루지 못하였다.

<보기 9>

- ① 예술은 영혼에 아픔을 준다고 한 울드리치의 말이 생각나는 대목이다(37쪽).
- ② 위의 글은 사소설을 많이 쓰는 손창섭의 1인칭 단편 소설의 한 대목이다(288쪽).
- ③ 위의 글은 신약 성서에 나오는 많은 비유 중의 한 대목이다(171쪽).
- ④ 이것은 진화에 관한 학설을 구분, 설명한 글의 일부다(176쪽).
- ⑤ 이것은 문화 인류학의 관점에서 ‘문화’를 정의하려 한 글의 일부다(183쪽).
- ⑥ 위의 글은 1인칭인 어머니가 딸에게 서간체, 수기체로 쓴 소설의 일부다(288쪽).

요컨대 정의 양식을 터득하려면 정의되는 부분의 주어와 정의하는 부분의 범주 개념어에 익숙해야 한다. <보기 9>는 구조를 갖추었으나 주술 관계의 호응을 이루지 못하여 일그러진 정의로 진술되고 말았다.

서정수도 문단 조직에서 허점을 드러내었다. 그의 ‘문장론 머리말’ 첫 문단은 다음과 같이 조직되었다.

이 책은 사고력과 문장력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충실한 “길잡이”가 되도

록 마련해 보았다. 곧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하여 생각하는 힘을 기르도록 함과 동시에, 글을 펼치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소상히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서정수의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첫 문단은 저술의 목적과 방법을 되풀이하여 진술하였을 뿐이다. 중심문장을 부연 설명하는데 그쳐 단어가 반복되고, 종결 처리도 어색하다. 그래서 ‘2문장 한 문단 구조’의 한계를 드러내었다.¹⁶⁾

우리 문장론의 문단 조직과 담문 구성 실태는 아직 어둡다. 그 원인을 이태준의 문장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문단 개념이 없었고, 구성 개념도 ‘서두, 결사’만 언급하였을 뿐이다. 다행스럽게도 문덕수, 김봉근, 서정수가 문단 조직을 강조하였으나 이오덕과 이대규는 문장론의 체계에서 문단 조직 항목을 설정하지 않았다. 정희모가 문단과 구성을 되살렸지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하였다(정희모, 2008).

문장 기술의 핵심은 사고 조직과 담문 구성이다. 우리 문장론이 문단 조직을 소홀히 다루었고, 담문 구성에는 아직 눈을 뜨지 못하였다. 그 원인이 교육과정과 문장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교육과정은 구성 개념이 아예 빠져 있는데, 이는 구성주의에 대한 부정적 수용 때문이다(최명환, 2008). 그래서 문장론에는 구성 개념이 겨우 명백만을 유지하였다. 우리 글쓰기가 진화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문단 조직과 담문 구성에 대한 심층적 탐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임이 더욱 분명해졌다. 앞으로 사고 조직과 담문 구성이 치밀한 문장론을 기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최명환, 2005).

16) 우리 문장론에서 문단 조직에 가장 치밀성을 보인 서정수였지만 ‘두 문장 한 문단 구조’가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 245, 272, 279, 293, 495, 600, 675, 715 쪽 참조.

2. 교정

문장론의 교정 실태는 너무도 문제가 많아 별도의 논문으로 다루어야 할 분량이다(최명환, 2008). 여기서는 문장론 교정 실태를 대강이나마 알아보고자 김봉균의 문장론에서 오자, 탈자, 띄어쓰기, 문장부호의 표기 문제를 간추려 보았다. ‘오자’는 오타로 보아도 될 듯싶다.

〈표 1〉 오자

구분 범주	오자 내용	출처	바로 잡기	비고
명사	용틀림, 작은 잎 애기 저녁 녀 물방울. 자맥질,	161, 257, 370, 436, 459, 554쪽	용트림, 잎, 애기, 저녁 녀, 물방울, 자맥질,	한글
조사	인지이라는, ‘의기의 불타고	396, 471쪽	인지라는, 의기에	한글
동사	눈에 띈다.	563쪽	띈다.	한글
어미	무슨 까닭이 있지 않냐는 의혹	80쪽	않냐는, 않나 하는	한글
어미	하겠읍니다. 찾아냈읍니다. 만들 어아겠읍니까? 왔읍니다. 있읍니 다. 못했읍니다. 리드했읍니다	107, 155, 195, 241, 287, 317, 403, 491쪽	하겠습니다. 따위	한글
어미	꿈이 깃들여, 굳어지거나 한 듯 이, 만난던, 알맞는 수법	124, 162, 167, 241, 289쪽	깃들여, 굳어지거나, 만난 던, 알맞는 수법	한글
어미	“동무가 없어서 궁금하겠군…”	274쪽	궁금하겠군	한글
방언	누구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123쪽	누가	한글
방언	설명을 도우는 방법의 하나로	171, 246, 433, 471, 474쪽	돕는 따위	한글
외래어	벵글라테시, 리얼리티(reality), 멤버	101, 124, 491쪽	방글라테시, 리얼리티, 멤버	한글
오타	그 생각의 선명하게	84쪽	생각을	한글
오타	지정(identification)을 사실, ②과	152, 421쪽	지정은, ②와	한글
오타	개념은 머리 속의 생각이므로	201쪽	머릿속의	한글
오타	孟子：樂子章句 上	209쪽	孟子章句 上	한자
오타	아이들은, 말하면, 처절한, 지낸 은, 나눌수록	82, 196, 266, 296, 616쪽	아이들은, 말하면, 처절한, 지내온, 나눌수록	한글
오타	교방, 비문(非文), 이인로의 ‘과 한집’, 매반	225, 360, 370, 559쪽	교방, 비문, ‘과한집’, 매반	한글

구분 범주	오자 내용	출처	바로 잡기	비고
오타	의미의, 청년은, 언젠가	460, 544, 578쪽	의미와, 청년은, 언젠가	한글
오타	(Speed) · (Sports) · (Screen) 의 3C의 시대, 36) (New York, 1937)	384, 523쪽	3S, New York	영자

〈표 2〉 탈자

구분 범주	탈자9 내용	출처	바로 잡기	비고
오타	㉘의 '웬'은 '웬'로 고쳐	65쪽	'웬'으로 고쳐야	
조사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 하고 "이는 것이 힘이다."고 헤서는	94쪽	"이는 것이 힘이다."라고 헤서는	
조사	표상로, '관점'로, '중심 사상'로 요약로	125, 224, 306, 449쪽	표상으로, 관점으로, 사상 으로, 요약으로	

〈표 3〉 띄어쓰기 오류

구분 범주	띄어쓰기 문제	출처	바로 잡기	비고
체언	스물 여덟 명, 수백 만년, 열 여드렛 달	164, 242, 267, 375쪽	스물여덟, 수백만 년, 열여드렛	
수식언	이미 제3의 새물결	243쪽	새 물결에	
용언	찾아 보아도, 살펴 보았듯이	63, 64, 106, 179, 360쪽	찾아보아도, 살펴보았듯이	
용언	제어보면, 검토해보, 생각해보 자, 만나본다는, 닦아보려, 언급 해보	106, 196, 236, 355, 356, 369, 434, 592쪽	제어 보면, 검토해 본 따위	
수식언	주제가 제목이 된셈이다.	329쪽	된 셈이다.	

〈표 4〉 문장부호 사용 실태

구분 범주	문제의 문장 부호	출처	바로 잡기	비고
저서	파스칼은 <팡세> 에서	29쪽	<<팡세>>	
저서	B. 리셀의 <행복의 성취>	50쪽	<<행복의 성취>>	
저서	그의 명저 <역사 철학>	221쪽	<<역사 철학>>	
저서	그는 동양의 <삼국지>	221쪽	<<삼국지>>	

구분 범주	문제의 문장 부호	출처	바로 잡기	비고
저서	<제3의 물결>이라는	239쪽	《제3의 물결》	
저서	'보바리 부인'에서	241쪽	《보바리 부인》	
저서	단테의 '신곡'(神曲)에서	266쪽	《신곡》	
저서	(레마르크: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각색')	279쪽	《사랑할 때와 죽을 때》	
저서	헤밍웨이의 '무기여 잠 있거라'도	295쪽	《무기여 잠 있거라》	
저서	<우리글 바로쓰기>	503쪽	《우리글 바로쓰기》	
저서	필자의 <문장기술론>	504쪽	《문장기술론》	
저서	최현배의 <우리 말본>	513쪽	《우리 말본》	

이러한 문장론의 오류를 오자, 탈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따위로 유형화할 수 있겠다. 오류 원인은 한자, 문법, 문화, 기능의 무지와 부실로 분석된다. 한자를 알지 못하여 저자의 성과 이름, 책 제목을 교정하지 못하고, 공간을 지각하지 못하여 띄어쓰기의 오류를 바로 잡지 못한 책임이 출판사에만 있지 않다. 어문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문장부호를 혼란스럽게 쓸 수밖에 없는 우리 수준이 이를 말해 준다. 교정의 부실 책임이 규정 개정의 당사자, 글쓰기 지도 담당 교사, 저작자에게 묻지 않을 수 없지만, 최종 책임은 출판사의 교정자에게 돌아간다(최명환, 2008).

이러한 교정의 문제도 원리 탐구로써 극복해야 한다. 저작자, 출판자, 편집자, 교정자가 상호작용으로 한국 출판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때가 되었다. 여기에 전문가의 비판적 참여로 우리 출판의 눈을 띄워 국제 경쟁력을 불러일으켜야 한글문화를 국제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정 자료는 표기와 표현의 정교화에 따르는 지각과 인식의 문제이다. 지각을 정교화하기 위하여 표준 서체의 구조를 익혀 공간 지각 능력을 전이시키는 전략이 개발되었다(최명환, 2007). 표기와 관련된 보기가 읽기와 쓰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 따위의 문제는 시각의 자동 훈련으로 기능을 습득할 수 있다. 글쓰기의 초보적인 기능을 표준 서체 훈련으로 터득하면 시각의 정교화뿐만 아니라 표현의 유창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이 글쓰기의 전이 효과임에 틀림이 없다.

IV. 맺는말

우리 대학생의 글쓰기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 원인이 직전 교육의 결과라고 탓할 때가 아니다. 그 근원은 근대화 과정의 일체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였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광복 이후의 수입학 영향도 부정할 수 없다. 우리 문장론의 실태가 이를 말해 준다.

그럼에도 한글세대가 우리 현대의 변화와 개방을 문장쓰기로 이끌었다. 한글문화가 언론과 출판의 큰 흐름을 바꿔 놓았다. 그런데 이 세대에 게 가장 영향을 미친 우리 문장론의 부실이 아직도 소통을 방해한다. 그 대표적인 저술을 꼽는다면 국어 교과서와 문장론을 들 수 있다. 이런 기술물은 당대 출판문화의 꽃으로 사교 교육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역사에 남을 문장론은 혼자만의 노작으로 이루어지는 저술이 아니다. 이론 체계는 저술가의 몫이지만 전략은 개발자나 연구자의 머리에서, 인용되는 담문은 작가의 도움도 받는다. 그래서 오랜 세월을 두고 깊고 다듬어야 명품 문장론을 내놓을 수 있다. 이런 문장론을 위해서는 학문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다. 새로운 2000년대의 우리 문장론을 기대하려면 최소한 원리와 체계, 기술과 교정 관점에서 이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글쓰기 연구물과 문장론은 글쓰기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입학에 의존하다 이론 개발에 소홀하여 외국의 방법론을 실험하느라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기술물에 오류가 섞여 있어도 거의 문제삼지 않았다. 그래서 광복 이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문장론의 기술 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문장론의 오류를 작게는 오자, 탈자,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부호 따위로 유희화할 수 있다. 크게는 원리, 체계, 기술, 교정의 전문성을 검증해 보아야 한다. 특히 사교 조직과 담문 구성이 치밀한 문장론이 나와야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는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수입학

에 빠진 글쓰기 연구를 비판하고, 대안 탐색을 위해서 우리 문장론을 검토해 보았다. 이런 학문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문장론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논의 결과가 기꺼이 받아들여져 우리 문장론의 품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우리 글쓰기 연구자와 문장론의 저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글쓰기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 현장에 도움을 주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글길’을 비취 줄 수 있도록 도우미로 거듭날 것을 다짐한다. 검색 기능으로 걸러지는 표기 문제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 본 논문은 2009. 2. 28. 투고되었으며, 2009. 3. 3. 심사가 시작되어 2009. 3. 30.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김봉균(2005), 제6관 『문장기술론』, 삼영사, pp.48~148.
- 문덕수(1976), 『신문장강화』, 성문각.
- 서정수(1991),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 한강문화사.
- 신지호(2009), “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 128, 한국어교육학회.
- 이대규(1995), 『수사학』 36, 신구문화사.
- 이오덕(1992), 『우리문장쓰기』, 한길사.
- 이정호(1975), 『훈민정음의 구조원리—그 역학적 연구』, 아세아문화사.
- 이지호(2001), 『글쓰기와 글쓰기 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태준(1948), 증정 『문장강화』, 박문출판사.
- 조동일(1996),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 조동일(1996), “생극론의 역사철학 정립을 위한 기본 구상”, 『한국의 문학과 철학사』, 지식산업사, pp.501~536
- 조동일(2005), 제4관 『한국문학통사』 1·4, 지식산업사.
- 최명환(2003), “담화의 구성 원리”, 『공주교대논총』 제40집 1호
- 최명환(1992), “작문의 문제점 논고”, 『국어과 교육학의 이론과 방법연구』, 교학사.
- 최명환(2001), “사고 확장의 원리”, 『공주교대논총』 제38집 1호
- 최명환(2006), “한국의 언어문화와 글쓰기의 원리”, 『국어교육』 119, 한국어교육학회, pp.31~53.
- 최명환(2006), “사고의 정교화”, 『공주교대논총』 제43집 1호.
- 최명환(2007), “초등교사 글쓰기 지도 능력 신장 방안”, 『공주교대논총』 제44집 1호
- 최명환(2008), “한국 문장론 고찰”, 『초등학교교육연구』 제8집 1호,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 최명환(2008), “담문의 진단 전략”, 『국어국문학』 148, 국어국문학회, pp.290~292.
- 최재학(1909), 『실지응용작문법』, 휘문관.
- 유협·최신호 역(1975), 『문심조룡』, 현암사.
- BROOKS & WARREN, Modern Rhetoric, HARCOURT BRACE OVANOVICH, PUBLISHERS, 1979.

〈초록〉

우리 문장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명환

이 논문은 우리 문장론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문장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우리 문장론은 글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근대 이후의 우리나라 문장론은 수입학에 의존하였고, 이론 개발에 소홀하였으며, 책임 의식도 뚜렷하지 못해서 제 구실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부실한 문장론은 표기 규칙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하였고, 사고 조직도 치밀하지 못하였으며, 담문(text) 구성이 허술하였다. 그 원인이 원리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데다 문장 기술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였다. 앞으로 2000년대의 우리 문장론을 기대하려면 최소한 원리에 따라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사고 조직과 담문 구성에서 치밀성을 보여야 하며, 표기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학문 공동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문장론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기를 바란다.

【핵심어】 글쓰기의 원리, 문장론의 체계, 문단 조직, 중심문장의 요건, 표기 규칙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Korean Syntax

Choi, Myeong-hwan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on studying the existing syntax critically in order to enhance its dignity. The Korean syntax has negatively affected on writing system which was dominantly relied on imported doctrines, lack of theory development, and none of ownership. Furthermore, it breaks the writing rules and loosens the text composition and thinking structure. The principle of the structure, precise thinking and writing system, and the upright writing rules are required at least, for the newly progressed 21st century's syntax and its competitiveness collaborated by its academic unions.

【Key words】 Principle of Writing, System of Syntax, Paragraph Organization, Requisite of Main Sentence, Writing Rules.